

대장경은 문화역량이 결집된 聖物

(성물)

분류따라 대장경 가치 달라져

일반적으로 경전이나 논서 등 불교의 여러 전적들을 모아서 분류해 놓은 총서를 '대장경(大藏經)' 혹은 '일체경(一切經)'이라고 한다. 대장경은 크게 세 가지 전통에 의해 형성됐다. 오늘날의 불교 역시 이 세 가지 전통을 근간으로 한다. 편역상이 세 가지 불교전통에서 형성된 대장경은 각기 팔리어(Pali)어 삼장 혹은 <남전대장경>(南傳大藏經), <한문대장경>(漢文大藏經), <티벳대장경>이라고도 부른다. 그 형성의 역사와 특징을 간단히 살펴본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성도(成道) 이후 45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가르침을 남기셨다.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사부대중이 모두 부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굳이 가르침을 책으로 편찬할 필요가 없었다. 부처님 열반 후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집대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그 결과 500여 라한이 모여서 부처님이 남기신 말씀을 모아서 결집하게 됐다. 최초의 결집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경장(經藏, Suttapitaka)와 교단의 계율규정을 모은 율장(律藏, Vinayapitaka)이 결집됐다. 그 후 교단이 분열되면서 각 부파에서 경전의 내용을 설명하고 분석한 논장(論藏, Abhidhammapitaka)이 성립됐다. 이 셋을 합쳐서 Tripitaka 곧 삼장(三藏)이라고 부른다.

교단 분열 이후에 등장한 각 부파에서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여 삼장을 전승하였는데, 그 중에 팔리어를 사용하는 분별상좌부 계통의 불교전통이 아쇼카 왕 시대에 스킨카로 전제되고, 다시 미얀마와 타이 그리고 캄보디아로 전해지면서 팔리어 삼장을 중심으로 하는 남방 상좌부 불교전통을 형성했다.

그 후, 대승불교운동이 일어나면서 경·율·논에서 각기 새로운 전적들이 세상에 출현했다. 새로운 대승불교전통은 팔리어 삼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과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팔리어가 아닌 산스크리트어를 주로 사용했고, 등장 직후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전해져서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한역불교권을 형성하게 됐다.

이 한역불교권은 북방 대승불교 전통으로도 불리는데, 불전의 번역은 2~13세기 동안 1100년 가까이 진행됐다.

남방불교는 상좌부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대승경전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역대장경은 주로 산스크리트어 불전을 한문으로 옮기면서 성립한 것으로, 초기불전은 물론 대승불전의 대부분을 포함한다. 거기에 더하여 한자 불교권에서 형성된 각종 주석서와 승려들의 어록 및 독립된 저술을 대장경에 포함시킨다. <티벳대장경>은 한역불교전통과 마찬가지로 산스크리트어 불전을 번역하면서 형성됐지만, 대승불교 이후의 다양한 밀교전적을 포괄했다는 점에서 한역불교 전통과 차이가 있다. 권역별 차이는 각 전통에서 형성된 대장경 내용과 체계에도 일정 부분 반영돼 나타난다.

경·율·론 삼장 기본으로 분류

한역경전부터 독자적 분류체계 시도돼

팔리어 삼장은 경·율·논의 삼장으로 구성된다. 그 중 경장은 장(長)·중(中)·상응(相應)·증지(增支)·소(小)의 다섯 부류의 니까야로 구성되고, 율장은 비구·비구니의 계율을 다루는 경분별(經分別)과 교단의 제도와 규정을 묶은 건도부(建度部)로 구성된다. 논장은 <법집론>·<분별론> 등 이른바 팔리7론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달리 <티벳대장경>은 불설(佛說) 곧 경장(經藏)에 해당하는 칸큐르와 논소(論疏) 곧 논장(論藏)에 해당하는 덴큐르로 나뉜다. 율장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율장 자체는 칸큐르에 소속되고 그 주석서는 분리되어 덴큐르에 소속시키는 체계로 돼 있다.

한문대장경은 조금 더 복잡한 체계로 구성됐다. 애초에 대장경 혹은 일체경이라는 말 자체가 경·율·논의 삼장 체계가 성립된 이후에 등장한 대승불전의 분류문

제, 중국에서 등장한 한문저술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삼장이라는 분류 체계가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곧 대장경 혹은 일체경이라는 말은 삼장이라는 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 대승불전·다라니장·한역권의 저술까지 포함하는 명칭으로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좁게는 한문 대장경만을 지칭하는 말이 된다. 또 불전이 두서없이 산발적으로 전해져서 번역됐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자신들 나름의 새로운 불교 이해 체계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수많은 경론의 분류체계에 적용했다. 이러한 새로운 이해체계는 삼장의 체계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기에 중국인들은 불교전적을 총칭하는 새로운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한문대장경의 체계와 구성은 목록의 작성에서 비롯된다. 그 최초의 목록이 364년 도안(道安)에 의해 만들어진 <종리중경목록(綜理衆經目錄)>이다. 이것을 기점으로 730년

특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 목록이 훗날 대장경 혹은 일체경이라고 부르는 많은 판본 대장경들의 원형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개원석교록>의 분류명목은 대승경(大乘經)·대승율(大乘律)·대승론(大乘論)·소승경(小乘經)·소승율(小乘律)·소승론(小乘論)·현성집(賢聖集)의 7항목이다. 이 중 대승경 곧 '보살삼장경부'를 반야·보적·대집·화엄·열반으로 나누고, 소승경 곧 <성문삼장경>을 근본 4아함과 기타로 나누어 세분했다. 이 같은 분류는 주제별 분류이기도 하지만, 중국불교인들의 교판론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 다음으로 한문대장경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는 한 이역본(異譯本)을 그대로 보존하여 전승한 점, 한문으로 번역됐을 때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채 전승했다는 점이다.

분류명목의 <현성집>에는 인도논사들의 전기와 중국인의 저작이 포함됐다.

북송의 개보 5년(972)에 조판하기 시작해 983년에 완성된 북송관판(北宋官版) 대장경은 이 <개원석교록>에 수록된 전적들을 세겨서 인쇄한 것으로 천자문 순서대로 불인 함에 넣어서 보관됐다. 이 북송관판대장경의 조성은 한문불교권의 최초 최대의 불전정리 작업이었다. 이로써 한문불교권 나름의 불전체계가 완성됐다. 무엇보다 이때부터 비로소 '대장경'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북송관판대장경, 일명 개보관 대장경이 완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려 역시 목판대장경을 조성하게 됐다. 이것이 고려대장경 초조본이다. 초조본은 북송관판 대장경을 참고하고 국내에 전해진 사본의 판각 등 추가 조성사업을 통해 북송관판보다 더 많은 불교전적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일본 난젠지(南禪寺) 등에 남아있는 초조본들은 고려대장경연구소의 초조대장경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해인사에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는 경판들은 초조본 경판들이 풍고의 침입으로 불타버린 후에 다시 조성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문대장경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고려의

<대장경의 간행과 인쇄 역사>

국외(중국, 일본 등)	년도별	한국	형태
당 목판인쇄(묘법연화경, 690년경)	700년 전후		
	751년 (이전)	신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목판본
일본, 백만담다라니경	770년		
북송, 개보판대장경(蜀版, 開寶勅版)	971~983년		
	1011~1087년	고려, 초조대장경(고구려장경)	
거란대장경(契丹版)	1031~1054년		
목송 경력간(膠泥活字)	1041년		활자본(교니활자)
북송(송녕판), 남송(비로판, 원각사판)	1075~1132년		
	1091~1101년	고려, 교장(속장경, 대각국사)	목판본
금, 금반(趙城藏)	1149~1173년		
남송, 홍법사판(金藏)	1149~1294년		
	1232년(몽고침략)	고려, 초조대장경·교장 소실	
	1236~1251년	고려, 재조대장경(팔만대장경)	
원, 사계판(思溪版, 자복사판)	1239년~?		
명, 명판남장(明版南藏, 보은사판)	1373~1403년		
	1377년(우왕3년)	고려, 불조직지심체요절	활자본(목각활자)
독일, 쿠텔메르크 성서(42행)	1456년		활자본(금속활자)
일본, 종존판(고려대장경판 복각판)	1614~1624년		목판본
청, 용장(龍藏, 淸版)	1735~1736년		
일본, 대일본교정대장경(縮藏)	1880~1885년		
청, 상해 빈가정사판(精伽精舍版)	1891~1911년		신활자본(활자본)
일본, 일본교정대장경(改正藏)	1902~1912년		
일본, 대정신수대장경	1922~1934년		
중국, 불교대장경(빈가정사판 복각)	1979년		
대만, 불광대장경	1983~1994년		
중국, 중화대장경	1998년		
	2000년(12.06)	고려대장경2000 CD롬판	디지털(전산화)
일본 SAT, 대만 CBETA, EBTI 등	21세기(전자본)	고려대장경연구소	

표: 고려대장경연구소 제공

교장(敎藏)이다. 대각국사 의천(義天, 1055~1101)은 인도로부터 전해져 대장경에 편입된 이른바 정장(正藏) 외에 중국과 한국에서 경·율·론의 주석서를 별도로 모아 교장(敎藏)을 간행했다. <신편제중교장총록>에 의하면 모두 1010부 4800여 권이다. 최초의 목판인쇄 대장경인 북송관 대장경이 1076부 5048권이니, '교장'의 규모와 비중이 능히 짐작된다. 이처럼 대장경 혹은 일체경은 각 불교전통에서 해당언어를 사용해서 필사와 인쇄 작업을 통해서 불전을 총서화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각 권역의 전통을 반영하여 독특한 형태와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단순히 불교전적을 총서화하고 간행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 대장경을 간행하는 불교 전통이 속한 문화권의 문화역량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했다.



석길암(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학센터 교수)

대장경을 찾아서 ②

초조대장경 보러 가요



경기도박물관, 명지대박물관, 삼성출판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일본 남선사(南禪寺)초조대장경은 1712책으로 전체 책 수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국외 소장 초조본은 남선사의 대마역사

국내 소장 초조대장경은 총 214책(冊)이다. 소장처 중 서울 태평로 성암고서박물관이 90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 미성동 호림박물관이 88책으로 많다. 이 두 곳의 소장본은 국내 소장본의 83%에 달한다. 그 외 계명대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호암박물관, 가천박물관, 구인사, 청주고인쇄박물관, 연세대도서관, 서울역사박물관, 영남대, 펜아시아중이박물관,

민속자료관, 일기(壹岐) 안국사(安國寺)에도 많은 양의 <대반야바라밀다경>이 전해지고 있다.

21세기 고려대장경이 모서진 곳도 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서달산 중턱 달마사(주지 미명)는 대장경 봉안 장경도량이다. 달마사는 고려대장경연구소와 2004년 4월 고려대장경을 총 108여 권으로 엮은 고려대장경 전산화본을 달마사 법당에 봉안했다. 이상언 기자

佛紀 2555年 辛卯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조계종

法寶宗刹海印寺

大韓佛敎曹溪宗 宗正, 海印叢林 方丈
道林 法傳 大宗師
東堂 道堅 西堂 智冠
首座 圓融 維那 圓覺

住持 善覺
總務 壽牛 敎務學 庵 財務 圓直
布敎 如海 護法 香綠 院主 大安
會計 宗印 爐殿 昌善

月刊 海印 編輯局長 宗玄 大藏經 保存局長 性安
海印寺 聖寶 博物館長 觀庵

海印叢林
禪院 律院 講院

해인사수련동문화, 화림회, 1029일 천도법회

총림대중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TEL 055)934-3000 / FAX 055)934-3010 / www.haeinsa.or.kr

佛紀 2555年 辛卯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조실치유대종사
주지정어

선원장 인각	박물관장 경선	강주용 학
부주지 정만	교무국장 법귀	재무국장 정현
호법국장 보운	호법국장 보운	연수효 성원
원주정오	상도감 도우	하도감 효원
신도회장 이윤희		

범어사에는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사북) 범어사 · (재)범어청소년동네 TEL 508-8822 성보박물관 TEL 508-6139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www.beomeo.kr
종무소 TEL 508-3122-5 원주실 508-3636 범어사 템플스테이 508-5726
범어사불교대학 불교회관 4층 TEL 866-7277